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 글	김 동 욱	소속(학부/과)	컴퓨터공학과
파견 학기	2018년 2학기		파견 국가	헝가리
파견 대학	부다페스트 기술경제 공과 대학교(BME)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대학에 들어오기 전부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교환학생'에 관심이 생겨 그리고 또 제가 전공하고 있는 전공과 파견학교의 성격이 매치가 잘 된 것 같아 지원 했습니다. 본교 수업 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곳에서 수업 들으며 다양한 교류와 경험을 하고 싶었으며 무엇보다 혼자서 해낸다는 자신감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부다페스트 도시는 야경이 유명하기로 물가가 저렴하다는 지식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런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관심이 더 생긴 나라였습니다. 이번기회가 아니면 앞으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생각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1. 주의사항

저 같은 경우는 출국 전에 메일 확인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수강신청 기간을 전혀 모르고 출국을 했습니다. 다행히 파견 학교가서 원하는 시간표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원하는 대로 돼서 다행 이었지만 도착하자마자 아찔했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출국 전에 메일이 주기적으로 오는데 중요 일정을 꼭 대충 읽지 마시고 꼼꼼히 잘 읽어 저같은 이런 불상사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견나라에 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데 관련 서류는 웬만해선 한국에서 준비해서 가는 것이 마음 편할 것 입니다.

• 비자발급관련 필요 서류

- 1) 여권
- 2) 여권사진
- 3) 재학증명서,입학허가서
- 4) 은행잔고증명서(300만원 이상 요구)
- 5) 보험증명서(영문, BME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보험)
- 6) 신청비용(약8만원)
- 7) 집 계약서(출국후 파견국가 집 계약서 사본 제출)

2. 항공권

저는 국제학생증(ISIC카드) 할인을 받아 구매 했습니다. 보통 외국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제학생증 ISIC카드를 발급받아서 출국합니다. 일찍 ISIC 카드로 항공권 할인받아 구매하면 편도 30-40만 원에 구매 할 수도 있습니다.

3.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파견학교 NEPTUN 시스템에서 시행하게 되고 하는 방식은 우리학교랑 비슷합니다. 수강신청 기간 꼭 확인해서 등록하면 되고 혹시 과목 정원초과로 등록 못 해도 해당 담당 교수 또는 멘토에게

메일 보내면 정원을 늘려 줄 수도 있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부다페스트기술공과대학(BME)는 엄청 역사가 오래된 학교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받은 교수님들도 다수 있습니다. 학교는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크기였고 건물이 많았습니다. 각 해당되는 과목 관련 건물은 따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동하는데 큰 불편함을 없을 겁니다. 학교는 부다페스트 강 근처이며 도심이랑 매우 가까운 한 가운데에 웅장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 트램, 버스, 메트로(지하철)이 있고 또 한달에 약 13000원 정도 되는 학생 교통권으로 부담없이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기후는 사계절이 있으며 한국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학교 근처에는 교회, 상점, 레스토랑, 술집 등 다양한 상점들이 위치해 있어 자기계발 및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저는 전공과목 2개 교양과목 3개를 수강했습니다. 수업은 다 영어로 진행됐으며 유익한 수업도 있었습니다. 다만 각 과목마다 시험 성적 충족 조건이 달라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꼼꼼히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엔 전공과목 1과목 시험 성적 충족 조건을 잘못 확인해 성적을 잘 받고도 전공과목 FAIL 결과가 나와 당황 했고 제 불찰인걸 인정하고 받아 들여야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공수업 따라 갈 수는 있으나 과제나 이런 것 등 본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저는 교양과목 위주로 수강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대부분의 과목 시험은 중간 기말 2번에 걸쳐서 치르게 되고 한국과는 다르게 시험을 못쳤을 땐 재시험기간에 재시험 기회도 있어 본인 노력만 있으면 무난하게 성적 받는데 어려움 없을 겁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기숙사는 따로 없고 저는 같이 파견간 저희 학교 친구 1명과 헝가리 가자마자 페이스북을 통해 집을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입학하고 학교 측 에서 집 계약을 못한 학생들 대상으로 묶어주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집 구할 때 학교 근처나 집근처에 트램(4번,6번)이 다니는 집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렌트 형식으로 같이 주거했고, 전기세 포함 월 40만원 이였으며 다른 플랫(share house)보다 5만원 크게는 10만원 정도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같이 두 명 이서 사는 것과 플랫을 통해 다른 외국인들 여럿이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처음 같이 지내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고 잘 맞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위 친구들 대부분의 학생들은 플랫(share house)으로 집 계약을 했었습니다. 처음엔 정신없이 당장 살 집을 마련해야 되는 줄 알고 신중하게 집 선택을 못한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다양한 교류와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저는 플랫(share house)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성향에 맞게 가기 전에 또는 직접 가서 신중히 집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교환학생으로 오는 학생들은 그쪽에선 다 ERASMUS 소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 소속이 되면 다양한 활동에 있어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이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파견대학 교환학생 시스템이 정말 알차게 잘 구성되 있는데 학기 시작하기 일주일전에 OT 및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부담없이 질문할수 있는 멘토들이 다 배치 되 있으며 SNS그룹으로 연계도 됩니다. 거의 매주 Pop event, Camp, Party 등 일주일에 3-4번은 교환학생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행사의 목적은 교류 및 친목도모였고 저는 정말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국적이 다른 다양한 학생들과 교류를 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매주 다양한 활동이 있어서 그런지 교환학생 자체 동아리는 없었으며 학교 부대시설로는 저는 도서관, 체육관을 추천드립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전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적 차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 똑같은 교환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꼈으며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권 나라들은 언어가 틀리지만 어순이나 학습방법이 영어랑 비슷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보통 이상으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영어 말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 및 불편함이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선 미리 한국에서 대비하고 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은 한국음식 생각이 정말 많이 들 정도로 입에 안 맞아서 저는 대부분 요리해서 해결했습니다. 오실 때 한국 라면, 핫반, 김 등 다양한 음식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작은 파도들이 모여 거센 파도가 된다.”

저는 첫 해외로 가는 것이 교환학생을 통해서 가게 된 것이라 상당히 처음에 긴장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출국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나라 환경이며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긴장됐고 어려움이 있었으나 적응을 해서 잘 극복한 것 같단 생각이 들어 지금은 뿌듯합니다. 이번 교환학생을 통해서 제일 크게 배운 점은 자신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았다는 점과 무엇보다 자신감을 갖고 한국에 돌아온 것 같아 기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서 전공관련 수업도 듣고 외국학생들과 프로젝트 발표도 하는 등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한층 더 발전하고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주위에 교환학생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는 당연히 두 번 세 번 추천 할 것 입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세계 야경 3위 안에 드는 부다페스트 야경 앞에서>



<학생들의 발이 되어준 4, 6번트램>



<대부분의 공대수업이 있는 I빌딩>



<International dinner party>